

AI 시대, 감정 문해력 향상을 위한 소설 읽기 교육 방법 연구

- 작중인물의 마음 읽기를 중심으로 -

김경애*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e-mail:minerbakorea@mokwon.ac.kr

A Study on Novel Reading Instruction for Enhancing Emotional Literacy in the AI Era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Character's Inner States -

Kyung-Ae Kim*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ok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AI 시대의 소통 위기와 정서적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서 감정 문해력 향상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소설 읽기를 매개로 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감정 문해력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현대 사회의 확증 편향과 관계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중인물의 마음 읽기를 중심으로 한 소설 읽기 활동과 감정 로그를 결합한 교육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입동」, 「엇박자 D」, 「스노우맨」을 제재로 하여 단계적 수업을 설계하였다. 구체적 수업 방법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의 단계에서 출발하여,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단계로 확장되고, 나아가 자기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자기 이해의 단계로 심화되는 구조로 설정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작중인물의 감정을 추론하는 활동과 학습자의 경험을 연결한 감정 로그 작성 활동을 통해 감정의 언어화와 성찰을 유도하였다. 연구 결과, 소설 읽기를 통한 마음 읽기 활동과 감정 로그의 결합은 학습자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적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감정을 단순한 정서 반응이 아니라 해석과 성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며, 감정 문해력의 다층적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정 문해력 교육 모형은 AI 시대의 인간적 소양을 강화하고, 소통과 공존의 문제를 환기하는 실천적 교육 방안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1. 서론

최근 ‘감정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문해력’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단순한 해독 능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해력 자체는 ‘음성적 읽기’를 넘어 텍스트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 ‘의미적 읽기’가 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같은 맥락에서 감정 문해력은 타인의 말, 표정, 침묵 등 다양한 신호 속에서 맥락과 뉘앙스를 읽어 그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감정 문해력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 사회가 지닌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파편화와 대인관계의 단절을 심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인간 소외 현상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념이나 가설을 지지하

는 정보만을 선호하고, 이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확증 편향’이 강화되기 쉽다. 더불어 초연결 사회, 알고리즘 기반 정보 환경, 팬데믹 이후의 비대면 경험 등은 소통과 관용, 공존의 가치를 약화시키며, 이른바 ‘나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소통이 약화되고 확증 편향이 강화된 사회일수록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집단의 극단화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을 배척하거나 소수에 대한 혐오하는 감정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된다[1, 2]. 이러한 문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감정 문해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AI 시대 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감정 교육의 여러 방안 중에서, 감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방법으로서 작중인물의 마음 읽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는 넓은 맥락에서 최근 개정·고

시되어 활용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응하여 미래 사회의 핵심 소양 교육으로서 소설 교육의 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이론적 고찰

2.1 작중인물의 마음 읽기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은 심리학 용어로서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 신념과 같은 정신 상태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의 행동을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 상태의 결과로 해석하게 하는 기제로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기반을 이룬다. 특히 이 능력은 타인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구별하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태를 가정한 과정에서 작동하며, 공감과 관계 형성, 갈등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의 이론은 서사 읽기 과정에서도 핵심적으로 작용하여, 독자가 작중인물의 내면을 추론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인지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노대원의 「서사의 작중인물과 마음의 이론」은 서사 이해 과정에서 독자가 작중 인물의 마음을 어떻게 추론하고 구성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 개념을 도입한 연구이다[3]. 이 글은 서사를 단순한 사건의 연쇄가 아니라, 인물의 의도·신념·감정 상태를 추론하는 인지적 활동의 장으로 본다. 즉 독자는 텍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인물의 내면 상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과정이 서사 이해의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작중인물의 마음 읽기는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 사회적 경험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특히 서사는 인물의 행동, 대화, 시점, 서술 방식 등을 통해 부분적인 단서만을 제공하며,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인물의 의도와 감정을 추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이론’은 타인의 정신 상태를 가정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능력으로 작동하며, 독자는 이를 통해 인물 간 관계의 긴장, 오해, 갈등 등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서사 읽기는 곧 타인의 마음을 구성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논문은 이러한 마음 읽기 과정이 단순한 이해를 넘어 독자의 정서적 반응과 윤리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독자는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감하거나 거리 두기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감정 인식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작중인물의 마음 읽기는 서사 이해의 핵심 기제일 뿐만 아니라, 타자 이해와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지·정서적 활동으로 의미화된다.

2.2 감정 로그

‘log’는 원래 기록부, 항해일지를 뜻하는 말에서 출발한 말로서,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상태를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나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기록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감정 로그는 이에서 비롯된 말로서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감정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내면의 기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감정 로그를 중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 설정한 이유는, 그것이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언어로 기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실천적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일상에서 다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지만, 그 감정의 원인과 맥락을 명확히 인식하거나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감정 로그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정을 ‘기록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감정의 발생 배경과 의미를 성찰하도록 돕는다. 즉 감정 로그는 감정을 즉각적인 반응의 수준에서 벗어나 해석과 이해의 대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이며, 감정 문해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실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감정 로그는 개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과정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조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소설 읽기와 결합된 감정 로그 활동은 작중인물의 감정을 추론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타자 이해와 자기 성찰을 동시에 촉진한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 로그는 감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현대 사회의 소통과 공존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도구라 할 수 있다.

3. 소설 교육 방법 모색

이론적 고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작중인물의 마음 읽기와 감정 로그는 감정문해력 형성을 위한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중인물의 마음 읽기와 감정 로그 활동을 결합한 소설 읽기 교육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감정 문해력 교육은 단일한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으로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3.1에서는 감정 문해력의 출발 단계로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공감 획득을 중심에 두었고, 3.2에서는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을 인정하는 관계 확장 단계로서의 공존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3.3에서는 이를 다시 자기 내면으로 환원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심화 단계로서의 자기 이해로 나아가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본 수업은 감정 로그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모든 활동은 감정의 인식과 해석, 기록의 과정을 통합적으

로 경험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실천적 구조는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수준을 넘어 읽고 해석하며 성찰하는 능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적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1 슬픔에 대한 공감과 균열 난 마음 보듬기
소설 「입동」은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은 부부의 서사를 통해, 상실 이후 일상이 어떻게 균열되고 감정이 지속되는지를 섬세하게 드러내며,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현대 사회에 내재한 소외와 단절의 양상을 탐색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감정 로그(Log)'의 관점에서 공감과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감정 문해력의 출발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공감을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곁에 머무는 태도'로 재정의하여 학습자들이 이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업 목표와 수업의 주요 흐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 목표

- 작품 속 현대 사회의 소외와 단절 양상을 이해한다.
-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고 이를 언어로 기록함으로써 공감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도입

- (1) 질문: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충분히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는 타인의 슬픔을 어디까지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까?
- (2) 안내: 소설을 함께 읽으며 상실의 경험을 겪은 인물들의 심정을 따라가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전개

- (1) 「입동」의 핵심 장면을 읽고 서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 (2) 부부 인물 간 감정의 차이를 분석하고, 관계의 '균열'이 드러나는 지점을 포착한다.
- (3) 상실 이후 '겨울'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내면과 외부 현실 간의 정서적 온도 차를 탐색한다.

적용

- (1) 활동: 학습자 각자가 타인의 고통을 마주했던 경험을 성찰하고 서술한다.
- (2) 감정 로그 활동
 - 감정 로그는 감정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언어로 기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성찰하는 데에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감정 로그는 이러한 훈련을 위한 기초적 실천으로 기능한다.

정리

- (1) 공감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곁에 머무는 것이다. 이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과정으로서의 공감을 의미한다.

3.2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계적 존재 감각 형성

「엇박자 D」는 '엇박자'라는 결핍의 경험을 지닌 인물이 자신의 리듬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시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특히 '음치'라는 설정은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소수자의 감정과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서로 다른 리듬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감정 로그(Log)'의 관점에서 성찰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감정 문해력의 관계 확장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다름'을 '틀림'으로 환원하지 않는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존재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업 목표와 수업의 주요 흐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 목표

-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는 비판적 관점을 형성한다.
- 다양한 존재 방식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조건을 감정 로그를 통해 탐색한다.

도입

- (1) 질문: 우리는 왜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가. '평균'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인가.
- (2) 안내: '눈치', '박자', '평균'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개인에게 가하는 압박을 살펴보고, '불편한 인사이더'와 '자유로운 아웃사이더'의 대비를 통해 문제의식을 환기한다.

전개

- (1) 「엇박자 D」의 핵심 장면을 읽고 서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 (2) '음치'가 지니는 상징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시선이 개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 (3) 리듬을 개별적인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고, 서로 다른 리듬이 충돌하거나 조화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적용

- (1) 활동: 학습자 각자가 '엇박자'라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고 서술한다.
- (2) 감정 로그 작성
 - 질문: "나는 언제 어긋났다고 느꼈는가?"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을 인식하고, 그 맥락과 의미를 언어로 정리한다.

정리

(1) 핵심 메시지: 공존은 서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리듬을 유지한 채 ‘함께 흐르는 것’이다.

3.3 고립과 단절 속에 살아가는 직장인의 내면 마주하기

『스노우맨』은 현대인의 고립된 삶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작품이다. 특히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어떻게 마주하고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하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기 감정 이해의 과정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타인 이해를 넘어 자기 감정 읽기로 확장되는 감정 문해력의 심화 단계에 해당하며, ‘감정 로그(Log)’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언어화하는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감정 문해력의 심화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를 심화하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업 목표

- 현대인의 고립과 단절이 개인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를 심화한다.

도입

- (1) 질문: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왜 때로는 깊은 고립감을 느끼는가.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 (2) 안내: 현대 사회에서의 고립과 단절의 경험을 환기하고, ‘보이지 않는 감정’에 주목하도록 유도한다.

전개

- (1) 『스노우맨』의 핵심 장면을 읽고 서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 (2) 인물의 내면 독백과 행동을 통해 감정의 결핍과 회피 양상을 분석한다.
- (3) 외부와의 단절이 내면의 감정 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탐색한다.

적용

- (1) 활동: 최근 자신이 느꼈던 ‘고립의 순간’을 떠올리고 서술한다.
- (2) 감정 로그 작성
 - 질문: “나는 언제 가장 혼자라고 느꼈는가?”
 - 그 감정의 원인과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언어로 정리한다.

정리

(1) 핵심 메시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입동』, 『옛박자 D』, 『스노우맨』을 제재로 하여 감정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감정 문해력이 단번에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단계별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즉, 감정 문해력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 하려는 공감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을 인정하는 공존의 감각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자기 이해의 단계로 심화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며, 성찰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교육적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소설 읽기를 매개로 한 감정 이해 활동은 인물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연결 지어 사고할 수 있도록 돕고, 감정 문해력의 다층적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이러한 감정 문해력 교육 모형은 현대 사회의 소통 위기와 정서적 단절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적 대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보의 과잉과 알고리즘 기반의 선택적 노출 환경 속에서 개인은 점점 더 자신의 관점에 갇히기 쉬우며,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 문해력 교육은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고 차이를 수용하며,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길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감정 로그’와 같은 언어화 활동은 감정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며, 이는 학습자가 보다 성찰적인 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정 문해력 교육 모형은 AI 기반 정보 환경에서 약화되는 인간의 감정 이해 능력을 보완하고, 인간적 소양을 강화하는 실천적 교육 방안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유리, “혐오에 대한 인성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제117호, pp. 31~54, 2018년.
- [2] 김지현, “시민교육으로서의 소설교육에 대한 시론 - 시민성과 두 가지 주요 감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79호, pp. 71~101, 2023년.
- [3] 노대원, “서사의 작중인물과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 -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본 인물 이론”,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pp. 95~117, 2015년.
- [4] 김지현, “슬픔의 윤리와 소설교육 - 김애란의 <입동>과 최은영의 <미카엘라>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76호, pp. 113~143, 2022년.

- [5] 최인자, “현대소설 기반의 성찰적 정서 리터러시 교육”, 문학교육학, 제65호, pp. 167~193, 2019년.
- [6] 김지혜, “죽음 성찰과 애도를 위한 소설교육 -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54집 3호, pp. 35~63, 2019년.
- [7] 김소은, “AI 시대, 대안으로서 감정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방법론 모색 - 마음이론, 인지적 서사학의 ‘인물 읽기’를 중심으로”, 사고와 표현, 제18집 2호, pp. 143~176, 2025년.
- [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년.